

Newsletter 느헤미야

하나님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



기독교학 심화과정 수업

팟캐스트, 채널 느헤미야

배근원의 에고에이미

〈2017년 청년대학생 신학캠프-하박국〉,
〈2017년 신학특강-세계 형석적 기독교로서 신
칼빈주의〉,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이야기
with 전성민〉

북케미야

〈은 세상을 위한 구약윤리-전성민〉

와일드 카드: 영화속으로

〈살인자의 기억법〉, 〈혹성탈출: 종의 전쟁〉,
〈육자〉

금요일, 책에 빠지다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박연선〉, 〈바울과 편
견-랜돌프 리처드, 브랜든 오브라이언〉, 〈휴가
때 읽고 싶은 책 Best 5 I, II〉, 〈바깥은 여름
-김애란〉, 〈호모데우스-유발 하라리〉, 〈오직
두 사람-김영하〉,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비 콕스〉

● 화롯불 모임 (10/25)

〈수인 1: 경계를 넘다-황석영 자전〉으
로 독서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학특강 (6/19-8/8)

〈기독교 세계관의 재구성: 세계 형성적
기독교와 공적 제자도〉라는 주제로 진행
된 여름 신학특강이 4회에 걸쳐 진행되
었습니다.

● 연구과정 수련회 (8/25-26)

팀 수양관에서 연구과정 재학생과 신입
생들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 헬라이어 기초강좌 (8/21-25)

이형일 교수와 함께 하는 헬라이어 기초강
좌가 진행되었습니다.

● 느헤미야 개강 (8/29~9/7)

서울과 대전 기독교학입문과정, 심화과
정, 성경주해전문과정 및 목회학연구과
정이 모두 개강하였습니다.

P2 N.칼럼

진실과 거짓의 싸움

조석민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 연구위원)

P4 느헤미안 스토리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는 공동체

홍창용 (목회학연구과정 2년)

P6 서평

피터 엔즈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장새미 (기독교학 심화과정)

진실과 거짓의 싸움

조 석 민 기독교연구원-헤미야 연구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 우리 사회와 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투쟁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혀 다른 양극단의 싸움은 항상 양적이며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승부가 가려지는 듯하다. 진리가 항상 승리한다는 말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미 빛바랜 옷감처럼 더 이상 진리가 아닌 듯하다. 진실과 거짓을 증명하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가? 거짓도 진실로 둔갑하고, 진실도 한 순간에 거짓으로 뒤집어지는 세상에서 과연 진실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도 매우 드물지만 진실의 힘을 믿고 굳건하게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고 그 누구도 깊이 묻어둘 수 없기에 결국 그 빛을 드러낼 날이 있을 것이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결국 거짓이 속속들이 들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살맛나는 세상이다. 군사독재정권 속에서 간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조작된 간첩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에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여겼지만 진실은 생명력이 있어서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선거개입이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질 것 같았으나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거짓은 숨길 수 있을 때까지만 진실의 행세를 한다. 하지만 거짓의 생명력은 허상이기에 진실 앞에서 그 모습을 추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아직도 밝혀져야 할 거짓이 너무 많이 있기에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재미도 있다. 너무도 뻥한 거짓을 말하면서 진실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정치권력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제 곧 진실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날이 가까워오니 기대가 된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그 자체로 공정한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언제든지 진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진실이 된다. 누구든지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고 말하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에서 거짓도 본의가 아니라면 진실로 둔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의가 아니라서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하고 백지화하면 살인도, 강간도, 횡령도, 도적질도, 폭행도, 불법도, 그 어떤 일도 본의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몇 십 억대의 교회 재정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교인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담임목사는 자신의 뜻대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자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이 사회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堡壘)로 존재해야 할 교회도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예외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거짓이 진실로 포장되어 거대한 경제력의 힘을 얻어 과대 선전되어질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짓된 진실에 항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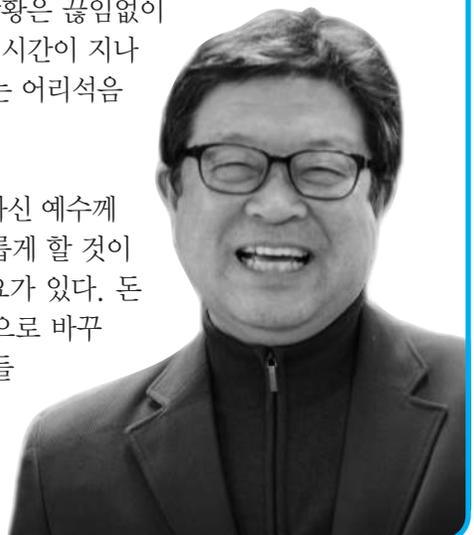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예수를 고발하는 유대종교 권력자들은 그 동안 정치권력을 얻어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가

며 행세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자신들이 거짓으로 예수를 고발하여 그 사실이 밝혀질까 봐 걱정하면서도 거짓을 끝까지 진실이라고 고집 부리던 당시의 종교권력자들은 오늘날 거짓을 목에 걸고 사는 정치인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의 모델이기도 하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동원되어 거짓을 진실이라고 변호하며 변명하는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마술사와 같다. 사람들은 신기한 마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자신의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동안 정치권력과 손이 맞닿아있는 전직 판검사 중에서도 고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마술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날 한국 개신교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사회가 진실을 덮어둔 채 거짓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 병든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어찌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속이 썩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 문제가 작은 거짓에서 출발한 것을 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 작은 불씨 같아서 결국 전체 교회 공동체를 큰 불로 삼켜버리게 된다. 거짓에 대한 성서의 교훈은 너무도 분명하다. 시편 기자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시 34:12-13)라고 교훈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때때로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를 본다. 그 사람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거나 인도하는 지도자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거짓이 통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행동을 진실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상(理想)은 좋지만 때때로 좋은 거짓말(white lie)도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굳은 신념이 없으면 누구든지 쉽게 거짓에 농락당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소한 한 가지의 거짓은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나중에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시간이 지나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일을 잠시 거짓으로 덮어 두려는 어리석음을 보게 된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그래서 쉽지 않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2)라고 했는데 다시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돈의 노예가 되어 기쁨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진실도 거짓으로 바꾸어버리는 세상에서 진실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릴 사람들이 필요하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정직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는 공동체

홍창용 목회학연구과정 2년



저는 광주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가끔 모임에서 동기들을 만납니다. 동기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녀?”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고 대답합니다. 저의 대답을 들은 동기들은 “아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대화는 끝나게 됩니다.

제가 있는 광주에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를 아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느헤미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는 반대로 학교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지방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없었고, 자습을 위한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설레는 마음을 지속하게 한 것은 의리로 뭉친 동기들과 친절하신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뜬금없는 질문을 해도 교수님들은 친절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가끔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식사는 삶

과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동기들은 삶의 선택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저의 고민과 선택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의 고민에 함께해주었고, 선택을 존중해주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선택하는데 저의 동기들은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함께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은 “교회의 정체성과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다양하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느헤미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듣는 교회론 수업은 저에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실마리들을 던져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연속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서 수업은 저에게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예언자들은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만이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세상이 바르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바른 세상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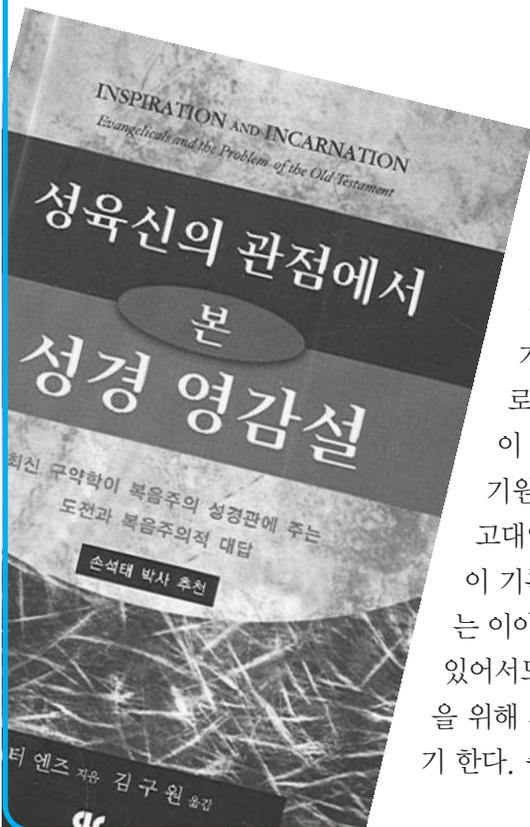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고민은 달라도 함께 고민하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곳입니다. 고민은 답을 찾게 만듭니다. 고민하는 만큼 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면 느헤미야에서는 어떠한 답도 얻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민하면서 찾아와야 합니다. 질문하면서 찾아와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 얻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친절할 곳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만 답을 주는 곳입니다. 아니 어쩌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느헤미야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의 흔적과 질문지를 가지고 현장에 간다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는 느헤미야” 이것이 제가 만난 느헤미야입니다.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장 새 미 기독교학 심화과정

이 책의 제목은 한 번에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성경 영감설’이라는 것도 낯선데,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라니... 두꺼운 책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읽기 쉽지 않은 책 일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쉽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다. 저자는 우선 책의 목적을 이야기한다.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성육신 유비’를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신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책인 동시의 인간의 책임을 인지하며 바라보자고 이야기한다. 저자의 목적을 듣고 나니, 드디어 책의 제목이 이해가 갔다. 사실 나는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니어서 성경 속에서 어떠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적이 많았고, 그러다보니 성경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는 정도로 얼버무리며 그것에서 멈추었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쩌면 나는 저자가 말하는 성육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기도 하였던 것 같다. 다만, 이렇게 명확히 개념 정리를 해주니 우선 속이 시원하다.



뒤이어 저자는 구약성경과 고대근동의 문학을 이야기 한다. 그는 구약성경과 고대근동 문학의 유사성에 대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 하고 나서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문헌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화’에 대한 정의가 인상적이었다. ‘신화’라고 하면 오래된 동화 정도로만 이미지화 되어있었는데(그리스로마신화 만화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신화는 인간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고대인들의 대답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그것이 기록된 때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또한, 성경을 ‘역사’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있어서도 역사 서술은 한마디로 해석 작업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 사건을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다. 즉 구약성경은 각각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술되었으

며, 고대근동의 문서로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고대근동의 문화적 특성을 함께 알고 있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생기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할 때, 이렇게까지 인간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하였다는 것이 새삼 고맷게 생각되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처럼 인간에게 다가오기 위하여 인간의 눈높이에 가까워지시고자 하셨던 모습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그들처럼 받음하거나 몸짓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3장에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적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성경의 다양성이란 구약성경 안에 동일한 주제에 관한 다른 관점들이나 의견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혼돈이나 오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이 없어야 한다는 사고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앞선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실 때 얼마나 철저히 그 역사에 참여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척도가 어찌면 '다양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양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성을 가졌다고 해서 초점이나 중심, 지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지향점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복잡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여기서도 저자는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속해 있던 당시의 관습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오용'이라 할 만한 것들도 제2성전기의 전형적인 성경해석 방법에 의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을 만한 부분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저자는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다양한 예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이 인상적이다. 성경 해석은 개인의 작업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작업이라는 저자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결론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의가 되는 결론이었다.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한다. 같은 말씀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의 성경공부 인데, 누군가 질문을 하면 여러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며 답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다. 목사님이 제시한 하지만, 배경지식을 나눠 주시는 것 정도의 역할만 하실 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는다. 성서학이나 기독교학을 전공한 사

람들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간다. 그 과정의 소중함 때문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 모임을 사랑하는 것 같다. 어쩌면 그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 를 강조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하며 책을 마무리 한다. 성경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욱 잘 이해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성경의 특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간혹 말씀에 집중하다보면 혹은 사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성경의 목적에 대해 잘 고민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질문들과 씨름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저자의 마지막 말은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온전히 육화된 모습으로 주신 그분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 해석의 궁극적 목적이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안고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 들어왔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 기독교적 지성을 더욱 함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유의미 할 것인데, 나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다. 다시금 그것을 상기 시키며 주님의 주신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봐야겠다.



느헤미야에 묻고 답하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2009년 성서한국전국대회가 주 모토브가 되었습니다. 당시 성서한국 전국대회 주강사들이 거의 지금의 느헤미야 연구위원들이었고요. 당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웨신(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의 위상 추락으로 새로운 신학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성서한국 전국대회 같은 곳에서 연결된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학교육이 많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당시 성서한국운동에 참여했던 운동가들과 교수들이 의기투합하여 시작되었고, 6개월이 가기 전에 정식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느헤미야는 이사회(이사장 강경민)가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은 7인의 연구위원회(원장 김형원)에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재정은 3분의 2 정도는 후원금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등록금과 참가비 등 수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700여명의 개인후원자와 30여 교회 및 단체 등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3명의 전임연구위원과 1명의 전임간사와 2명의 파트간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미후원자들의 힘으로 느헤미야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목회자양성을 하면서 혹시 일반 성도들 교육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요?

느헤미야는 2010년 2월 개원했을 때부터 일반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학입문과정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8년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약 100여명 이상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대전에서 50여명, 온라인으로 40여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교수들이 시간과 열정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과정인 목회학연구과정, 기독교학연구과정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교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 양성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변화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많은 열정을 기울이지만 이 때문에 일반 성도 교육을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지역의 온라인 과정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앞으로 계획은요?

내후년이면 개원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걸맞은 일들을 준비하고 새로운 교수진의 발굴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에도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여 성도들의 교육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교회협의회를 통한 교회 간 연대 사업, 청소년 사업 등 교육 외의 사업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비전처럼 하나님나라 구현과 한국기독교 재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이 필수입니다.

후원재정동역자와 재정보고



● 2017년 6월-8월

개인 후원 (정기/일시불)

강경순, 강경태, 강내은, 강도영, 강민혁, 강범일, 강복인, 강선희, 강성태, 강수연, 강신만, 강신영, 강신하, 강인성, 강일성, 강희춘, 고광덕, 고미혜, 고용주, 고윤일, 고인환, 고재광, 고현정, 공영희, 공성희, 공영찬, 공창준, 박명화, 박은희, 박동원, 구본준, 구자욱, 구지혜, 권명재, 권미탁, 권미순, 권민정, 권성호, 권영오, 권영우, 권현아, 금 흥, 기용서, 기호용, 김강산, 김경래, 김경모, 김경희, 김광수, 김구성, 김구원, 김규동, 김규진, 김근주, 김기영, 김기창, 김기현, 김기환, 김남희, 김남재, 김대근, 김대연, 김대원, 김대인, 김도선, 김동근, 김동석, 김동춘, 김동현, 김동훈, 김래선, 김미성, 김미정, 김미정, 김민수, 김민정, 김민철, 김봉태, 김사원, 김상열, 김상욱, 김석주, 김석재, 김석훈, 김 선, 김선태, 김선호, 김선희, 김성대, 김성열, 김성학, 김세중, 김소희, 김수미, 김수희, 김승준, 김신덕, 김신한, 김아름, 김아주, 김양현, 김영구, 김영균, 김영기, 김영삼, 김영석, 김영준, 김영진, 김영혜, 김예성, 김요한, 김용문, 김용순, 김우빈, 김우영, 김은경, 김은경, 김은별, 김은성, 김은애, 김은하, 김은향, 김은형, 김은혜, 김민성, 김민수, 김재신, 김재훈, 김정걸, 김정은, 김정현, 김정훈, 김중욱, 김중철, 김중철, 김중현, 김주석, 김준수, 김준수, 김준혁, 김지연, 김지은, 김지인, 김지현, 김지환, 김진미, 김진선, 김진수, 김진하, 김진협, 김철학, 김태민, 김태윤, 김태환, 김판재, 김하영, 김하영, 김한규, 김현성, 김현수, 김현철, 김현우, 김현주, 김형규, 김형규, 김홍근, 김소희, 김홍선, 김희배, 김희정, 나단아, 나영길, 나정수, 나중삼, 남기용, 남미영, 남백희, 남성원, 남오성, 남 철, 노민규, 노연신, 노향림, 노혜미, 노호균, 노활석, 동방호현, 류준열, 문기순, 문영관, 문병국, 문인배, 문정화, 문한나, 문형욱, 문호빈, 문희은, 민경인, 민대기, 민병간, 민은경, 민은주, 민지영, 박건영, 박국아, 박근호, 박금옥, 박금자, 박기용, 박대년, 박두진, 박미경, 박미향, 박민규, 박민균, 박민서, 박민서, 박민유, 박병만, 박보윤, 박선미, 박성민, 박성민, 박성숙, 박세훈, 박세호, 박순희, 박순혜, 박신애, 박애영, 박연주, 박영희, 박영희, 박은정, 박재익, 박정수, 박정숙, 박종선, 박지연, 박지호, 박진철, 박진호, 박한배, 박한성, 박현희, 박형준, 박형준, 박형준, 박혜원, 박혜정, 박호연, 박홍용, 방성희, 배민철, 배성호, 배소연, 배운하, 배운기, 배윤호, 배진호, 배태용, 배효진, 백민정, 백병환, 백순철, 백승훈, 백용진, 백용환, 백은정, 백중원, 변성진, 변은혜, 변지연, 서미영, 서연자, 석은진, 성경식, 성시윤, 손주환, 손주환, 손정근, 손태권, 손혜미, 송경근, 송경아, 송덕무, 송병배, 송아진, 송은희, 송철달, 송현미, 신국식, 신동준, 신동철, 신상준, 신선영, 신소용, 신승철, 신영희, 신주현, 신지호, 신춘봉, 신현오, 신현주, 심재용, 심태영, 심혜인, 안경미, 안경성, 안광희, 안병열, 안세주, 안윤희, 안정희, 안진호, 양미라, 양선용, 양지영, 양희수, 엄진용, 엄태진, 엄태호, 여경애, 여신애, 오경준, 오금애, 오수경, 오숙현, 오인성, 오정희, 오주희, 오지현, 오창훈, 오혜경, 오혜영, 옥명호, 우석윤, 우자영, 우재형, 우종하, 원근래리, 유가을, 유경원, 유계상, 유근순, 유동식, 유영중, 유미선, 유병욱, 유병진, 유병휘, 유성일, 유 술, 유수경, 유수진, 유영백, 유영성, 유옥, 유인환, 유재경, 유재미, 유지은, 유지희, 윤기원, 유찬양, 유충현, 유호영, 유희창, 윤대영, 윤지현, 윤민규, 윤선민, 윤성윤, 윤수일, 윤원정, 윤준택, 윤진아, 윤희정, 이강산, 이미경, 이경희, 이경하, 이관영, 이귀영, 이규복, 이근우, 이기적, 이기호, 이길승, 이동주, 이동환, 이로운, 이명숙, 이명희, 이미경, 이미소, 이미영, 이민정, 이방욱, 이병구, 이병선, 이병욱, 이상원, 이상준, 이상진, 이상찬, 이상호, 이선재, 이상동, 이상영, 이상용, 이상재, 이세운, 이소연, 이수미, 이수범, 이수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정, 이순조, 이승민, 이승민, 이신석, 이양천, 이연우, 이영애, 이영주, 이예림, 이완수, 이원근, 이원희, 이윤정, 이윤희, 이은복, 이은재, 이은혜, 이일수, 이정은, 이재구, 이재욱, 이재원, 이재은, 이정락, 이정민,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종민, 이 주, 이주연, 이준승, 이준우(조호진), 이종필,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진숙, 이진형, 이창민, 이창선, 이철규, 이태호, 이풍관, 이현일, 이한주, 이항숙, 이현아, 이현우, 이현재, 이현지, 이형석, 이혜원, 이호태, 이화정, 이홍범, 이희석, 이희욱, 임도훈, 임동민, 임명숙, 임민, 임민선, 임석원, 임아영, 임옥희, 임재천, 임성수, 임정우, 임종화, 임지혜, 임철호, 임종희, 임재현, 임희수, 장건세, 장경숙, 장명우, 장삼순, 장세미, 장영균, 장유도, 장윤석, 장인성, 장인순, 장재구, 장재원, 장진희, 장현일, 장혜영, 장효진, 전계영, 전남식, 전미아, 전병준, 전세훈, 전재윤, 전준환, 정가영, 정경아, 정국진, 정기태, 정누가, 정명숙, 정미현, 정석구, 정성훈, 정여민, 정연선, 정용인, 정원순, 정윤석, 정이랑, 정재기, 정재도, 정지영, 정지은, 정지훈, 정찬형, 정창수, 정태영, 정철규, 정춘식, 정택인, 정하나, 정태국, 정혜경, 정혜원, 정홍배, 정희진, 정훈재, 정희원, 정철원, 조기행, 조두용, 조선미, 조성모, 조성영, 조성호, 조세주, 조수정, 조순래, 조영민, 조영욱, 조원규, 조은아, 조은주, 조주현, 조혜숙, 조혜정, 조희준, 주동재, 주영은, 주현우, 지성학, 지미애, 진현자, 차정호, 차지훈, 채미숙, 채성순, 채근인, 채인혜, 채재진, 천재성, 최경숙, 최경진, 최동국, 최미곤, 최사문, 최성호, 최소영, 최수빈, 최수진, 최수진, 최영민, 최영성, 최영선, 최영준, 최영희, 최용주, 최원규, 최윤호, 최은희, 최은복, 최은주, 최은혜, 최민선, 최필호, 최지연, 최재훈, 최종원, 최진화, 최진규, 최진영, 최희순, 최현복, 최홍진, 최황덕, 추은출, 하규하, 하민아, 하진순, 하태권, 하효숙, 한경숙, 한나영, 한두리, 한영석, 한영호, 한미현, 한부홍, 한상은, 한승호, 한승환, 한유진, 한은혜, 한은희, 한인희(유태호), 한지일, 함복식, 함진호, 함진화, 허성호, 허윤정, 허진석, 허한규, 현지윤, 형숙인, 호 흥, 호소라, 홍명미, 홍인경, 홍준호, 홍지수, 홍창용, 황가영, 황남주, 황민선,

황선관, 황성주, 황인돈, 황정환, 황준영, 황현주, 황혜정, JONGHWA K.

연구위원 후원

강성태, 강재희, 고선숙, 권연경, 김동국, 김민재, 김은형, 김인철, 김창식, 김혜선(민경일), 동예림, 손정식, 유경석(방필연), 유지희, 이성권, 이상재, 이윤희, 이지연, 전갑수, 전계영, 조상우, 조석민, 최윤희

교회 및 단체 후원

100주년기념교회, 개포동교회, 광고산울교회, 그루터기교회, 나눔목교회, 동인선교회, 백향나무교회, 사경의교회, 산아래교회, 산울교회, 새말교회, 영동교회, 신바람홀케어, 어울림교회, 열린가정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주남개그놀이교회, 주사랑교회, 진명해피케어, 하.나.의.교회, 하나꿈햇빛누리, 하나님나라교회, 한그루교회

장학 후원

김근주, 이성재

특정목적 후원

최미근(장소대여), 프락시스(장소대여), 유지희(청소년사역)

운영성과표			
계정과목	6월-8월	계정과목	6월-8월
사업수익	100,654,950	사업비용	98,208,390
후원금	6,890,6479	사업운영비	24,857,470
일반후원금	63,936,479	사업인건비	15,135,000
특정후원금	4,970,000	사업진행비	3,746,060
사업수입	31,703,752	사업홍보비	1,676,410
수강료수입	26,870,000	수업료지원비	4,300,000
사업수입	4,833,752	관리운영비	73,350,920
기타수입	44,719	인건비	39,074,740
기타수입	44,719	사무관리비	34,276,180
당기순자산의 증(감)		2,446,560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과목	제8(당)기 금액
유동자산	31,916,767
당좌자산	31,916,767
비유동자산	90,955,694
투자자산	
유형자산	50,955,694
기타비유동자산	40,000,000
자산총계	122,872,461
부채	
유동부채	873,000
부채총계	873,000
순 자산	
기본금(영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120,554,461
순자산총계	121,999,461
부채외순자산총계	122,872,461

*느헤미야 소식

*느헤미야 일정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 “칭의와 정의 ; 오직 믿음으로만?” (자세한 내용은 광고참조)
- 부산신학캠프 “일상과 소명” : 11월 4일(토) 오후 1시~5시, 양정중앙교회
- 느헤미야 컨퍼런스 : 11월 10일(금) 오후 7시~11일(토) 오후 1시, 서울여성플라자
대상 : 느헤미야 가족 모두 (후원자, 학생 및 교직원)
느헤미야랙처 발제 : 조석민 교수 “신약성서의 여성관”
- 2학기 Reading Week : 11월 6일~10일 (성경주해전문과정만 정상수업)
- 2018 청소년 캠프 : 2018년 1월 18일(목)~20일(토): 불광동 팀비전센터 단풍나무관 예정

*기도와 동역

1. 종교개혁500주년을 맞는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마련한 포럼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칭의’의 문제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2. 주간에 공부하는 목회학연구과정과 기독교학연구과정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게 하시며 건강과 재정을 채워주시며, 2018년 신입생을 붙여주소서.
김현주, 조선미 학생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3. 기독교학입문과정에 학생들이 많이 늘었는데 수용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온라인과정과 대전, 부산지역을 잘 연결하게 하소서.
4.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 동참할 교회들을 보내주시고 연대하여 하나님나라를 일구게 하소서.
5.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같이 동역하는 후원자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소서.

후원자들의 후원금 증액과 새로운 후원자 발굴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 운영과 장학금, 전임연구위원 후원 등을 위해 후원자 발굴과 증액이 필요합니다.
후원문의 : 070-8260-0208 (강화춘 간사)

- 정기 후원 자동이체후원 신청 www.nics.or.kr/funding
- 무통장 후원 국민 822401-04-042816 /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 연구위원후원 신한 100-027-945530
- 학생장학금후원 국민 012501-04-251307
- 청소년사역후원 농협 351-0908-7177-63
- 해외에서후원 Swift CODE : CZNBKRSE, 국민 822401-04-042816



- 뉴스레터 느헤미야 ● 발행인 김형원 ● 편집인 고상환 ● 편집부 고상환 광명화 ● 발행일 2017년 9월 25일
- T 070-8260-0208 F 02-323-0208 E nics@nics.or.kr M nics.or.kr Podcast 채널 느헤미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느헤미야 포럼

칭의와 정의: 오직 믿음으로만?



주최: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후원: 새물결플러스, CBS, 누스엔조이, 복음교수원, 서울연동교회,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일시

10월 16일, 23일, 30일 매주 월요일
저녁 7:00-9:30

1차

10월 16일

성경이 말하는 칭의와 정의, 그리고 구원
김창락 · 김근주 · 최흥식

장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2차

10월 23일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칭의교리
박성철 · 한수현 · 김옥순

등록비

매주 1만원
크라우드 후원자 무료
느헤미야 정기후원자 50%할인

3차

10월 30일

칭의교리의 재조명
김선영 · 이형기 · 배덕만

참가신청방법

느헤미야 홈페이지 www.nics.or.kr
사전 신청 및 납부 필수

크라우드 펀딩

<칭의와 정의> 포럼을 위한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느헤미야에서 종교개혁500주년 기념포럼과
학술총서를 발간합니다.
이 일을 위해 후원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 후원금은 기고자의 기고비 마련을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후원금액 : 1계좌당 5만원
후원자 특전 : 칭의와 정의 도서 증정 및
포럼 등록비 무료 (총 6만원 상당)
후원계좌 : 농협 301-0050-2652-01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
- 성명(포럼)기재

포럼내용을 담은

'칭의와 정의' (새물결플러스 출간)

현장 판매 예정